



## 해양부, IMO A그룹 이사국 재진출 추진 국제해사분야 선진국 지위 확립 기대

해양수산부는 금년 11월 국제해사기구(IMO) 제24차 총회에서 실시되는 이사국 선거에 대비해 A그룹 이사국 재진출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A그룹 이사국 재진출 의사를 IMO에 공식 표명하고 재외공관을 활용한 지지교섭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해사관련 국제기준 제정계획 수립, 예산 승인 등 IMO 운영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주요 해운국인 A그룹 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 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 20개국 등 40개국(각각 임기 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C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하다가 2001년에 A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현재까지 A그룹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A그룹 이사국에 진출한 이후 우리나라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협약이행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국제해사활동을 해왔으며, 2003년 제23차 총회에서도 A그룹 이사국으로 재선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A그룹 이사국 재진출이 무난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A그룹 이사국 재진출로 우리나라는 해사분야 선진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해운·조선 관련 국제협약 및 기준 제정시 영향력을 키워 해사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 및 조선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을 담당하는 UN 전문기구로서 우리나라는 1962년에 가입했다.

### 해양부 출항정지사례 예방 설명회 개최 국적선사/유관단체 임직원 60여명 참석

해양수산부는 7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요 국적선사 및 유관단체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적선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아·태지역 항만국통제(TOKYO MOU) 사무국 주관으로 실시예정인 선원의 선박안전설비 사용법 숙지여부 등에 대한 중점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사무국은 선박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특정 항목을 정해(2002년 ISM, 2003년 벌크선의 구조적 안정성, 2004년 ISPS CODE 등) 집중점검을 해왔으며 올해는 선원의 구명·소방·항해설비 등에 대한 숙지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해양부는 추후 국적선박의 외국 항만국통제로 인해 출항정지사례를 최대한 예방해 선박안전관리 최우수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항만국통제(PSC : Port State Control)란 항만당국이 자국 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선박의 안전설비 등을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업무이다.